1. 청자와 공유할 수 있는 말로 강연을 꾸리면서 강연의 집 중도를 높인다. 또한 “전쟁만이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다.”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말함으로써 강연의 주제인 모든 일은 극복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피력함. 이러한 정주영 전 현대 회장님의 강연과 대담을 들음으로써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또한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. 단순히 한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지만, 무엇보다도 누군가를 위하는 즉 대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함이 동기부여가 되고 개인의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. 정주영 회장님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마음이 컸기에 우리가 정주영 회장님을 위대한 위인으로 기억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. 저도 무언가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위하는 마음으로써 모든 일에 임해이겠다 생각했습니다
2. 청자와 공유할 수 있는 칭찬 받았을 때의 청자의 반응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. 칭찬을 받은 후에 감사를 전하는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일상을 바꿀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. 쑥스럽다는 이유 하나 혹은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보낸 칭찬을 외면하고 있진 않은가,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관계를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감사인 “그말정감”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 시켜준 것 같습니다. 또한 마지막에서 발표내용을 직접 청자들 에게 적용 시킴으로써 일상에서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.